



즉시 배포용: 2024년 8월 1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NATIONAL SAFE + SOUND WEEK 기간 중
근로자 안전 장려**

뉴욕주 노동부는 폭염 중 야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고 내용
확인은 [여기](#)

뉴욕주 산업재해보상 위원회는 근무지 안전 및 근로자 권리에 대한 무료 웨비나 실시

Kathy Hochul 주지사는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National Safe + Sound Week를 맞이하며, 주 전역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뉴욕주 이니셔티브 및 프로그램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은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뉴욕주 고용주들이 폭염 상황에서 외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근무지 위험은 사고 발생, 질병, 부상, 사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상청구 수, 보험 비용, 근로자 유급휴가 사용 등이 늘어나고 전반적인 근로자 생산성 하락하는 등 기업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더위 지수 측정법을 설명하고 더위 지수가 화씨 80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 고용주들이 채택할 수 있는 상세한 대책을 설명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한 일터가 성공적인 일터입니다. 그리고 뉴욕주는 뉴욕의 다양한 일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Safe + Sound 주간 동안 우리가 뉴욕 근로자의 보건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노력에 주의를 집중할 기회이며, 근로자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합니다.”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커미셔너인 **Roberta Reard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폭염이 더욱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 가는 가운데, 뉴욕주 노동부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우리의 지침은 야외 근로자 안전 보호를 위해 고용주가 채택할 수 있는 주요 대책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뉴욕주 전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 및 건강을 위한 기타 이니셔티브 및 프로그램에는 뉴욕주 산업재해보상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가 진행하는 무료 웨비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뉴욕 주민은 자신의 권리와 권리 보호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Safe + Sound 주간을

맞아 위원회는 Buffalo AFL-CIO Central Labor Council - Communications of America (CWA) Local 1168 보건 안전국장인 Denise Abbott와 8월 12일 오늘 새로운 웨비나를 진행하여 특히 근로자 안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합니다. 논의 주제에는 근무지 안전의 중요성, 근로자 권리 및 보호, 노동 관리 안전 위원회, 고용주 안전 인센티브, 기타 뉴욕 주민의 일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모범 관행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8월 13일과 27일 위원회의 Advocate for Injured Workers가 월간 근로자 웨비나 101 및 202를 각각 진행하여 근로자 재해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Law)에 따른 권리를 소개하고 보상 청구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등록 링크 등 웨비나 관련 정보는 [위원회 웹사이트 Upcoming Webinar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비나 진행 후, 위원회 웹사이트에 동영상 이 게시됩니다.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주 경찰(State Police),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는 뉴욕의 도로와 교량에서 근로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를 위해 협력합니다. 이러한 협력 대상에는 [자동 작업구간 속도 단속\(Automated Work Zone Speed Enforcement\) 프로그램](#), [차선양보법\(Move Over Law\)](#) 확대 적용, 하드햇 작전(Operation Hard Hat) 등이 포함됩니다. 자동 작업구간 속도 단속 이니셔티브는 레이더 등을 활용해 과속 차량을 식별하여 작업 구간에서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도록 장려합니다. 작년 핑거 레이크스 Route 104에서 적발된 최고 속도는 시간당 139마일이었습니다. 올해 최고 속도는 뉴욕시 Interstate 95에서 적발되었으며 속도는 시간당 117 마일이었습니다. 하드햇 작전에는 뉴욕주 순찰대원과 지역 경찰관이 참여하며, 이들은 작업구역에서 근무하는 고속도로 유지보수 인력을 안전을 지킵니다. 이들은 DOT의 작업구간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적발합니다. 2024년 현재까지 사법집행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1,447건의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AGM)는 웹사이트에 [지침](#)을 공개해 농장 근로자들이 폭염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 조치를 소개했습니다. 농업시장부는 최근 뉴욕 농업의학보건센터(New York Center for Agricultural Medicine and Health, NYCAMH)와 함께 농장 소유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관련 질병 예방에 초점을 둔 웨비나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발표 내용은 [AGM의 유튜브\(YouTube\)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및 향후 변경될 폭염 기준, 새롭게 OSHA가 제안한 규정 및 노동 제안, 폭염 질병의 징후, 증상, 비상 대응, 농장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예방 전략 등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농업시장부는 NYCAMH이 John May Farm Safety Fund와 National Rollover Protection Structures (ROPS) Rebate Program 등 중요한 근로자 안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AGM은 또한 재정 계획, 정신 보건 문제 핫라인 등 농업 산업을 지원하는 단체인 NY FarmNet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는 전국 유일하게 주정부 기반으로 운영되는 직업 건강 클리닉 네트워크인 [New York State Occupational Health](#)

[Clinic Network](#)의 과학 및 행정 감독, Heavy Metals Registry를 통한 납 노출 문제 확인, 뉴욕주 보건부의 Extreme Heat Action Plan for New York State 창설 등 이니셔티브를 통해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폭염 관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계획을 통한 근로자 건강 보호 노력이 포함됩니다.

뉴욕주 산업재해보상 위원회(New York State Workers' Compensation Board)

Clarissa Rodriguez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근무 중 부상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생계를 이어가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근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원회의 무료 웨비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고용주에게 책임을 알리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일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루웨이 관리청 청장인 **Frank G. Hoar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은 스루웨이 관리청의 사명이며 우리의 대원칙입니다. 올해 초부터 관리청의 근로자 안전보건부(Department of Employee Safety & Health)는 수십 건의 안전 훈련 및 회의를 진행하였고, Safety Standdowns 및 논의를 통해 작업구간 안전을 개선했습니다. 200건 이상의 검사와 점검을 시행했고 비상대원/CPR/AED/Stop the Bleed, 정신 비상 대응 훈련 프로그램을 주 전역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안전과 건강이 핵심 가치가 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Marie Therese Dominguez 뉴욕주 교통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OT 지구언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드햇 작전과 작업구간 속도 단속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도로와 교량에서 작업하는 우리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운전자들에게 이러한 근로자들의 목숨이 실제 달려 있으며, 작업구간 이동 시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Richard Ball 뉴욕주 농업 커미셔너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농업 노동자들은 식품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 가족이 신선한 현재 재배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필수 노동자들입니다. 농업시장부는 다수의 농업 단체와 협력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들은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농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식품 공급망을 강화하고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James McDonald**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안전과 건강을 중시하는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 중 발생하는 다수의 부상과 질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보건부가 기업,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근로자, 고용주,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예방 전략 및 교육을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 근무 중 발생하는 안전 및 건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Safe and Sound Week은 뉴욕의 근로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벗어날 자신의 권리를 알고, 폭염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내며 안전 훈련과 교육을 통해 진정으로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Safe + Sound Week 소개

[Safe + Sound Week](#)는 매년 8월 열리는 전국적 행사로 근무지 보건 및 안전 프로그램의 성공을 이해하고 미국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